

 보도자료 2013. 12. 10. (화)	행사문의	송치선 전문연구원 (02-3156-7144)
	언론담당	황애리 홍보담당 (02-3156-7296)
	보도일자	2013. 12. 10. (화)
	※ 총 3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2014 지방선거 남녀동수 의회 만들기, 구체적인 전략 제시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지방선거 남녀동수 의회 구성을 위한 전략 모색” 주제로 토론회 개최

- 2014년 제6차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다 많은 여성후보 발굴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CI)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136개 조사대상국 중 111위로 지난해에 비해 3계단 하락하였으며, 정치적 권한 부문은 86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후원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12월 10일(화) 오후 3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4 지방선거 남녀동수 의회 구성을 위한 전략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최금숙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2014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군을 확보하고, 남녀동수 의회 구성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심도 깊은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 이미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이날의 주제발표인 “2014 지방선거 남녀동수 의회 구성을 위한 전략 모색”에서 지역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날 행사는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연숙 전 정부제2장관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 후에는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승희 민주당 국회의원,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희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신명 한국의정여성포럼 사무총장,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붙임 1. 행사 개요

붙임 1 행사 개요

- ☐ 주제 : 2014 지방선거 남녀동수 의회 구성을 위한 전략 모색
- ☐ 일시 · 장소 : 2013년 12월 10일(화) 14:30~17:00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후원 : 여성가족부
- ☐ 프로그램

일정		내용
14:30~15:00	등 록	
15:00~15:10	개회식	사회 :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정책센터장) 국민의례 인사말 :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축사 :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좌장 : 이연숙 (제16대 국회의원, 제8대 정무제2장관)		
15:10~16:40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2014 지방선거 남녀동수 의회 구성을 위한 전략 모색 이미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 지정토론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승희 (민주당 국회의원)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희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신 명 (한국의정여성포럼 사무총장/17대 국회의원)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6:40~17:00	종합토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